

“도민 삶 속에 기쁨으로”

김관영 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삶에도 활짝 기운과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여러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도전과 성과의 시간을 만들어왔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지켜내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용기와 인내, 그리고 도정을 향한 믿음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기회의 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2026년은 더이상 준비의 해가 아닌, '결실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변화의 기반 위에 도민 한 분 한 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쁜 가족을 돌보는 일이 혼자만의 몫이 되지 않도록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어른이 홀로 외롭지 않도록, 도정은 복지와 안전, 교육과 경제, 문화와 농생명 모든 분야에서 도민 삶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특히, 전북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세우는 일에 멈춤 없이 매진하겠습니다. 디지털AI, 새만금 메가센트라스 RE100 기반 에너지 대전환 등

앞으로의 전북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 '선도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도정에는 더 유능한 도지사도, 도민 결에는 더 겸손한 사람으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광야를 달리는 말처럼 두려움 없이 전북의 내일을 향해 질주하겠습니다.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도민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해지고, 전북의 미래가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북 대전환의 길 열겠다”

문승우 도의회의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의회는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는 민생 회복과 산업 전환, 복지과 안전 등 구조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앙과의 협력을 강화해 군산항 준설, 새만금 개발, 재정 특례 등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도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기반도 확실히 마련했



습니다. 2026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과를 만드는 실행의 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추가 특례 발굴과 자치입법권 확보를 위한 조례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인구 위기 대응과 농산어촌 지원, 전북혁신도시 시종2 준비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와 주력 산업의 신기술 전환을 뒷받침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전북 RE100 산업단지과 전북전주올림픽 유치는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일 전략입니다. 의회는 기반 시설 점검과 제도적 지원을 꼼꼼히 챙기며

경쟁력 있는 추진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광역 철도망 구축과 GTX 연계 논의 등 교통망 개선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의회는 민생과 예산,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습니다.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절차와 원칙을 지키며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전북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새만금의 미래, 특별자치도 권한, 산업 전환, 인구 위기 등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지만 도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더 큰 꿈을 실현하는 전북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북교육, 한국의 중심으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힘찬 기상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23년, 2024년, 2025년도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실있는 정책과 투명한 행정으로 국가 권익위원회 평가 종합점수도 2등급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전북교육



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교실과 학교의 변화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학생의 힘은 모든 학생의 기본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은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으로 꿈을 펼쳐나갈 소중한 미래인재입니다. 기초학력과 문해력을 탄탄히 다지고, 교실 안에서 속도에 맞는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신뢰와 존중의 공간이 되도록 교원 보호와 존중의 공간이 되도록 교원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전북형 책임교육을 굳건히 이어가겠습니다. 학생의 마음 건강을 살피고,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학생,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체계적이고 다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기에,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인의 어깨'는 'AI·디지털'입니다. 전북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교육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합법교육, 생태전환교육,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책임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북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 2026년도 전북교육은 한국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으로”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발전을 열망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희망과 꿈이 샘솟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민선 8기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치열하게 애쓰고 도전하면서 전북의 중추도시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왔습니다.

당당히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기 위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전주대변혁의 비전과 계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길을 함께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용기라는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희망이라는 씨름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변화를 두려워 않고 혁신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전주대변혁의 출발점이 될 MICE 복합단지

는 이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정지권의 도움으로 어렵게 통과한 대광법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때로는 치열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 결실을 하나씩 수확해야 합니다.

용기 내 투자를 약속한 세계적인 영화제작사 큐무와 대한민국 1호 액셀러레이터 기업 (주)트립톤의 과감한 도전에 응대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응원과 도움을 통해 성취한 전주 하계올림픽 우리나라 후보 도시 선정에 이은 유치라는 과제에 망설일 수도, 주저할 여유도 없는 풀어야 할 숙명입니다.

나열하기조차 힘든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이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민의 삶 속으로 더 힘차게 달리겠다”

남관우 전주시장의회의장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붉은 태양의 힘찬 기운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깃들여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가 혼란 속에서 희망의 씨름을 틔운 인내의 시간이었다면, 2026년은 그 씨앗이 단단한 나무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의 해가 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고, 희망의 씨름을 틔워야 하는 중추적인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미래를 평가

를 할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시민 모두의 역할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은 물론, 우리와 이웃한 지역과도 뜻을 모아 세계로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주시장의회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서로를 믿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전주의 내일은 어제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그 상생의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 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병오년 새해에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전주시장의회를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산시민의 목소리, 시정의 기준으로 삼아 끝까지 최선”

강임준 군산시장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고물가와 경기 불안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골목을 지켜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들녘과 바다에서 지역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 농·어민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군산의 경



쟁력을 떠받쳐 주신 노동자와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상을 지켜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군산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고, '시민의 일상이 든든한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어른의 삶이 존중받는 도시, 일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열정과 책임으로 씁 없이 뛰겠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현장을 더 많이 찾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기준으로 삼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민과 호흡하며 정읍의 변화 차근차근 쌓아갈 것”

이학수 정읍시장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읍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활 현장에서 전해주시는 의견 하나 하나가 정적을 보완하는 소중한 기준이 되었고, 이는 정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차분히 다져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정읍시는 공공서비스조리원 설립과 어



린이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을 추진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통해 세대별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와 국가바 이오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을 통해 미래 산업 기반을 넓히고, 무성서원 유교수원원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운영, 내장호 수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의 전환

도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공간 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과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는 행정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읍시는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변화를 차근차근 쌓아갈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뿌리내린 결실, 더 큰 세상 중심 되도록”

정헌을 익산시장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힘찬 기백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새해를 맞아, 익산시민과 함께 지지 않는 열정으로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있어 지난해는 통합 30주년이라는 이정표 위에 또 다른 100년의 비전을 세운 대전환의 원년이었습니

오랜 시간 훼손됐던 왕궁면 일대의 자연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했고, 대한민국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익산의 2026년,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더 큰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간 시민과 함께 일궈낸 위대한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Great 익산의 변화를 이어가코자 합니다.



먼저 산업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며, 문화·관광 콘텐츠가 풍성한 1,0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365일 빈틈없는 돌봄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가동하고, 집 가까운 녹색 힐터를 넓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정원도시 익산'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하고 든든한 행정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시가 증명해 온 변화와 혁신의 힘을 전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킬 때입니다. 그동안 뿌리내린 결실들이 더 큰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여정에 변함없는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도 인사를 올립니다. 전북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붙잡고 일어섰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자력을 바탕으로,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가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길의 맨 앞에서 책임 있게 뛰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구호보다 성과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청년이 머무르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전북, 따뜻한 만큼 보답받는 전북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새해,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손을 맞잡는 순간, 전북의 내일은 분명 더 밝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익산시민들과 전북도민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변화가 닿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